

러시아 대중문화와 패션

정 주 은 · 정 현 속 · 김 혜 경*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강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러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대립을 반영하는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보편적인 문화 현상인 대중문화와 달리 러시아만의 독특한 사회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러시아 대중문화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러시아 대중문화의 유형을 분석하고 같은 시기 러시아 패션에 나타나는 러시아 대중문화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 패션이 대중문화의 흐름과 유형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혼합과 함께 국가적인 주도의 단일문화 시스템을 형성했던 스탈린 시기의 패션은 단일화된 문화적 유형의 특수성으로 개인적 욕구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제한된 현실 속에서도 대중문화가 내포하는 상업적인 의미와 자기표현 욕구를 패션을 통해 표출하고자 하였다. 단일문화는 이후 서구의 고급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가 합쳐지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공식과 비공식 문화의 이중구조로 형성된다. 러시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대중문화는 그것이 내포하는 이상적 추구, 계급적 구분의 철폐와 관계되었고 공식적인 가치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세련된 스타일과 대중이 지향한 패션스타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중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저항을 바탕으로 한 하위문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문화적 다원주의 구도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가 되면서 여성에게 패션은 가장 중대한 자아 표현의 한 부분이 되었고 이는 패션 소비 욕구로 나타났다. 이들의 패션은 과거의 사회적 체제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나타내는 현대적인 패션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표현하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활용하여 서구적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문화다원주의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의 공존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러시아 대중문화, 러시아 패션, 포스트소비에트 패션, 러시아 디자이너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김혜경, hestia19@naver.com

접수일: 2016년 7월 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23일

I. 서론

문화는 인간과 사회의 발전을 토대로 형성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 구성원 다수의 기호를 반영하는 대중문화는 고급문화로 분류되는 소위 엘리트문화와 구별되며, 이를 통해 그 사회의 현재와 내재된 이면을 바라볼 수 있다.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역사를 가진 러시아는 19세기 말 산업화를 통한 자본축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함께 대중문화의 뿌리를 내렸다. 사회주의 체제 하의 러시아 대중문화는 상업적인 서구의 대중문화와 달리 그 시대의 정치적인 이념이 포함된 역사적인 특수성을 가졌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으로 다양한 사회적 대립과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편적인 문화 현상으로서의 대중문화에서 러시아만의 독특한 사회적인 특성이 반영된 러시아 대중문화는 아직까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현재의 러시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러시아의 사회적 변화와 정치에 관련된 연구와 함께 러시아의 언어, 문화에 관한 연구들로 그 범위가 한정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러시아 대중문화와 패션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러시아 대중문화를 시기와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 변화에 따른 패션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대중문화의 유형변화를 분석하고 같은 시기 러시아 패션에 나타나는 러시아 대중문화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 패션이 대중문화의 흐름과 유형변화에 영향을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대중문화를 근거로 러시아 패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오늘날 패션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한 러시아 패션의 연구 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문화적 배경과 대중문화의 유형을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러시아 패션의 전개과정과 현대패션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러시아의 사회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1910년대 소비에트 시대를 시작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시대로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패션 사례 분석은 일반 대중들의 패션과 대중매체,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패션을 중심으로 1930년~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러시아 대중문화의 변화와 유형에 관한 분류는 Lee(2008a)의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기준에 따랐다.

II. 러시아 대중문화

1. 러시아 사회 문화적 배경

1) 소비에트 시대 (1917년~1991년)

소비에트 시대는 5세기 가량 이어져 온 전제 정치 체제가 종식되고 소비에트가 조직된 1917년 러시아 혁명부터 1991년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ev)의 사임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시기로 구분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СССР)은 소비에트(Совет), 소비에트 연방(Советский Союз), 소련을 의미한다(Kim et al., 2013). 소련은 15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CCP-15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 키르기

스, 그루지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가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소련의 가장 큰 주도 공화국이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혹은 러시아(Россия)로 국가적 명칭이 변경되었다(Lee, 2009).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Vladimir Il'ich Lenin)은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소련의 지도자로 집권하였다. 1917년 10월 혁명에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전체국가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레닌은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Joh & Geum, 1998). 러시아는 4년간 지속되었던 내전과 함께 서구 열강들의 무력간섭으로 러시아 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었고, 극심한 경제적 피폐로 인해 매일같이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했다. 레닌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경제정책을 수립하였고 정책의 성공으로 경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Lee, 2013).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사실주의가 러시아의 문화에 전반적인 사조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혁명과 그 이후동안 서유럽과 고립된 상황에서 오히려 러시아 구성주의의 새로운 이념인 ‘예술의 사회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Jung & Kim, 2015). 1915년과 1923년 사이 소비에트 당국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주면서,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였다(Kim, 2008).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은 1924년부터 1953년까지 집권하였다. 스탈린은 국가가 직접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국영산업화 정책을 채택, 연속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농업 생산물의 공동생산 체제를 도입하였고, 집단화에 반대하는 귀족과 농민들을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냈다. 이러한 경제계획은 농·공 분야의 근대화 및 산업화로 생산성과 수출력을 급속도로 향상

시켰다(Service, 2007). 1945년 소련의 승리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소련은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이 소비에트의 공식 미술(official art)이 되면서 예술은 국가적 제제를 받게 되었다.

1953년부터 1964년은 니키타 세르게예비치 흐루시초프(Nikita Sergeevich Khrushchev)가 소련을 집권한 시기였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지만 대중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로 인해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수와 정치경찰에 대한 공포가 크게 줄었다(Lee, 1991). 소련은 1956년 헝가리의 민중폭동으로 사회주의의 국제화라는 사상을 창출, 전 세계에 사회주의 과급을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에는 당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한 공식 미술 외에 사회주의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비공식 미술(unofficial art)이 생겨났고 비공식 미술가는 당 주도의 예술가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발적인 예술가 그룹으로 소비에트 당국의 예술 정책에 반대하는 작품 활동을 하였다(Cho, 2013).

1964년부터 1982년까지는 레오니드 일리치 브레즈네프(Leonid Ilyich Brezhnev)가 집권하였다. 1977년 10월 채택된 헌법에서 브레즈네프는 소비에트 인민의 국가 및 사회적 업무에 대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내세웠으며, 언론·출판·집회·테모 등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 헌법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소련 공산당의 국가지배를 확립하고 브레즈네프의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게 만들었다(Kim, 1992). 이전 집권 시기에 활동하던 비공식 미술가들은 1970년대에 서구 유럽의 추상미술과 개념미술에서 영향을 받아 모스크바 개념주의(conceptualism)와 소츠 아트(Sots Art)의 반체제 예술 운동을 펼쳐 나갔다.

1982년 11월 유리 블라디미로비치 안드로포프(Yuri Vladimirovich Andropov), 1984년 2월 콘스탄틴 우스티노비치 체르넨코(Konstantin Ustinovich

Chernenko) 공산당 서기장 이후,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새로운 당서기장으로 취임하면서 소련 사회는 급격하게 바뀌어갔다. 고르바초프는 ‘재건’, ‘재편’이라는 뜻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정책과 ‘열림’, ‘개방’이라는 뜻의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정책을 추진하였고 서기장의 직함을 버리고 소련 최초의 대통령에 올랐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은 소수민족의 민주화 및 자유화를 가져왔으며(Lee, 2006) 마침내 고르바초프에 대한 시위로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는 사임을 발표,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2)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1991년 이후)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거치면서 정치권력 구조, 정당체제를 비롯해 많은 부문에서 변화를 겪었다. 대통령도 고르바초프,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그리고 다시 푸틴으로 바뀌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새롭게 도입된 시장경제체제는 러시아의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 문화는 본격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문화와 정치경제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Cho, 2006).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이 이뤄지면서 사회주의의 어두운 도시의 분위기도 다채로운 자본주의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 소비상품 전시와 광고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모스크바의 역사적, 전통적 부분은 세계화 경향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외되고 현대화된 세련된 이미지가 도시의 새로운 중심을 차지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자, 소비는 삶의 중요부분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경제가 매년 7%대의 GDP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개인들의 구매력이 상승하자 러시아의 소비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또한 러시아 도·소매 유통업은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빠르게 팽창하였다(Kang, 2008). 과거 러시아의 소매 거래가 파편화되어 있고 30만개의 소규모 거래상에 의존하였던 것에 비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근대적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이 생겨나 도·소매업의 지형도 변화하였다(Kang, 2008). 현대 러시아에서 쇼핑은 구매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계급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이들은 같은 수입대의 유럽인들에 비해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0).

자본주의적 논리는 러시아 대중문화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문화가 상품으로, 대중이 소비자로 규정되는 자본주의적 문화논리는 대중문화를 문화의 제1영역에 등극시키고, 이윤이 이념의 자리를 대신하여 소련 시기 대중문화의 이념성과 비상업성을 몰아냈다. 집단주의나 금욕, 절제 같은 사회주의적 가치는 물론이고, 해빙기 이후 비공식적 대중문화 고유의 정신적 가치들은 풍요의 경제학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식, 즉 만족에 대한 수요와 그 충족을 지향하는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가치로 대체되었다. 이에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의 확산을 기반으로 러시아 고유의 가치와 문화적 개성에 대한 요구가 강력한 사회적 목소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사회주의 대중문화의 경험은 물론, 고대 루시, 제정러시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만의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가 대중문화 구조 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 통합되는 양상이 전개된다(Lee, 2010).

소련의 해체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시대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으로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이후 푸틴 집권아래 정치가 안정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다시 등장하면서 경제는 활기를 띠었다. 이에 정치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로 인

식되고 있으며 과거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러시아 대중문화의 유형

러시아 대중문화는 보편적 문화 현상인 대중문화의 특성을 러시아만의 독특한 문화사적 차원으로 바라봄으로써 현대 러시아 사회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러시아 대중문화의 유형을 국가 주도의 단일문화 시스템이 형성된 스탈린 시기, 공식적 대중문화와 대안적 대중문화 경쟁의 이원적 구도가 발생한 해빙기 이후 시기, 사회주의 대중문화와 새로운 자본주의적 대중문화가 통합되는 문화적 다원주의 구도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단일문화-스탈린 시기 (1930년대-1950년대 중반)

스탈린 시기는 국가 통치 이념에 기반을 둔 확고한 문화 패러다임이 위로부터 선포되어 아래로 집행된 시기이다. 그 본질은 마치 소련 사회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구분이 철폐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역시 레닌시기의 고급-저급, 엘리트-민중이라는 위계가 철폐된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탈린 집권 후 단일문화 패러다임이 공고히 형성된 이후 사실상 ‘대중문화(mass culture)’라는 개념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소련에서 대중문화의 개념은 상업적 부르주아 문화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상업적 목적에 부응하는 자본주의 대중문화와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소련 대중문화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며, 개념의 차이는 있으나 스탈린 시기 단 하나의 문화로서 대중문화가 존재했다(Lee, 2008a).

스탈린 시기의 대중문화는 고급문화, 민중문화 등 다른 문화적 구조와의 관계를 통해 규정되는 한 단위가 아니라, 이전 시기 하부구조를 자신 속에 포

괄하는 단일한 구도이자 기획으로 존재했다. 이 기획은 소련식 사회화, 소비에트적인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사회주의적 이상에 대한 헌신, 금욕과 절제, 공동체, 개인적 행복이나 즐거움의 거부와 같은 가치를 전달하였다. 단일 문화 형식은 이전시기 고급문화 또는 대중문화로 나뉘었던 예술 형식에서 기존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 하위문화, 문화적 형식들과 여러 분야의 결합과 질층으로 나타났다.

소련에 존재하는 단일 문화, 즉 혁명적 대중문화의 강령이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문학이나 회화 같은 이전 고급문화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요, 대중소설, 포스터, 서커스, 영화 등에도 적용이 강요되었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기존 경계는 근본적으로 사라졌다. 스탈린이 레닌의 국제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민족주의로 선회한 이후, ‘러시아 민족의 신화’로 포장된 민속문화의 요소까지 이 단일문화 패러다임 속에 수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고급문화·대중문화·민속문화를 아우르는 스탈린식 대중문화의 단일구도가 완성된다(Lee, 2008b).

스탈린 시기 문화정책의 본질 즉, 대중에게 이해 가능한 모든 문화적 소재, 형식, 장르와 방법을 총 동원해 그들을 사회주의적 현실에 적응시키고 그 일상에 충실하게 할 것은 단일문화 패러다임 속 개별 장르에 분명히 반영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중의 전달매체인 포스터가 있다(Figure 1).



Figure 1. 대 스탈린이어 영원하라-공산주의의 건축자.
From Shin, (2004). p. 39.

스탈린의 사회주의 성취는 새로운 질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제도와 문화의 활용을 허용했다. 구질서의 도구였던 기념비적 예술과 건축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그것의 성과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처럼 1930년대 스탈린주의 문화는 소비에트 사회주의로부터의 후퇴가 아니라 그것을 공고화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Hofmann, 2003). 이러한 맥락에서 1930년대 소비에트 일상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대중문화는 스탈린주의의 독특한 문화적 유형이다. 그것은 일종의 소비에트적 문명화 과정으로서 당대의 소비에트 사회의 역사적 상황과 계급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농민들의 도시 이주와 새로운 엘리트 계층의 형성에 관계된다. 여기에서 대중문화는 국가가 새로운 소비에트적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적 가치 체계이면서, 동시에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전유하고자 했던 문화적 규범 체계였다. 또한 대중문화는 대중에 대한 포용의 전략으로서,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에 기초하는 유연한 일상의 정치학이었다. 대중문화를 통한 새로운 소비에트적 주체의 구성은 사회주의적 이상인 평등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엘리트 계층의 출현과 육성에 기여했고, 그것은 그들만의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특권화 되기도 했다(Oh, 2009).

하지만 대중문화의 주체들이 스탈린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의 소비에트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역사 속에서 문화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단순한 맥락이 아니라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2) 이증문화-해빙기 이후
(1950년대 중반-1980년대)

스탈린의 죽음으로 시작된 해빙은 정치적, 이념적 차원의 자유와 해방의 분위기를 가져왔다. 스

탈린 시기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산업경제는 소련에 소비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했다.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 교육의 민주화, 도시와 시골의 평준화, TV 등 대중매체의 전국적 보급, 냉장고·세탁기·카세트 등 가전제품 소유의 일상화, 상품생산과 서비스 영역의 발전, 공동 주거형태에서 개인아파트로 주거 방식이 변화된 것은 스탈린 체제의 집단주의적이고 구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물질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사회의 공식적인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을 뿐이다. 흐루시초프 시기에는 소련의 우주산업,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 프로그램, 신사회주의 건설 캠페인, 전국적으로 시행된 처녀지 개척 프로젝트 등으로, 브레즈네프 시기에는 스탈린주의의 부분적 회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정체와 관료주의로 소련 사회는 여전히 집단주의적 대중 동원 사회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했다(Lee, 2008a).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과거의 통제와 억압이 약화된 분위기에서 사회 전반으로 대중들의 비공식 구조가 형성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의 뒷면에서 번성했던 암시장, 개인적 물물 거래 등의 지하경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가치의 집단적이고 금욕적인 형식에서 개성적이고 개인적인 가치로의 이동을 가져왔고 가치의 이중구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상의 부활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식적 삶의 가치와 함께 비공식적 삶의 가치, 즉 사생활, 가족, 개인의 행복을 향한 가치 추구가 시작되었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구조화된 공식-비공식의 이중적인 구도는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선언된 단일한 대중문화 속에 이념과 가치가 다른 비공식의 하부구조가 생성된다. 이러한 공식적-대안적 대중문화의 이중구조 패러다임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에스트라다 가

요와 바르드 가요로 이원화되었던 대중음악이다. 소련 팝, 소련식 대중가요를 의미하는 에스트라다 가요는 스탈린 시기 군중가요, 집시음악이나 로망스 같은 민속음악, 서구 팝의 혼합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노래는 전쟁에 대한 공식화된 서정, 조국과 자연에 대한 찬미, 낭만적 사랑과 같이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으로 대중을 위로하였다. 이 노래들은 소련 체제의 안정성을 확증하면서 공식적 대중문화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전파하는 좋은 매개물이 되었다. 반면 바르드 가요는 당대 공식적 문화 규범 뒤에 가려진 가치의 변화,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지향을 대변하며 비공식적 대중문화의 전범을 구성해나간다. 이들의 노래는 때로는 서정적인 유머를 통해, 때로는 날카로운 풍자와 조롱을 통해 주류 사회에 비판을 가했고, 이를 통해 내용적으로 에스트라다 가요와 구별되었다(Lee, 2008a).

1960년대 중후반은 모방의 시기로 서구의 록 음악을 러시아 록 그룹이 연주하던 시대였으며, 70년대에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된 록 음악이 창작된다. 이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을 거치며 지하작업실을 중심으로 록 뮤지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지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하위 문화에서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저항문화로서 변모한다. 하지만 여러 지도자의 탄압을 받았던 록의 운명은 1985년 4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주창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때부터 국영 라디오와 TV는 록 음악을 제약 없이 방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록 음악은 새로운 변화의 상징으로써 그 역할을 부여 받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2000년대에 들어 자본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경제하에서 자본에 의한 탄압을 받게 된다(Lee, 2011). 자본주의 사회에서 록 뮤지션들은 생계를 위해 음악활동을 해야 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비주류이며 반체제 음악가로 인

식되면서 러시아 록은 점차 힘을 잃게 된다.

이렇게 당시 소련 사회에서 하나의 예술형식 속에 대중문화와 엘리트 문화의 특성이 공존하거나, 서구에서는 보통 공식문화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마련인 엘리트문화가 비공식문화의 주변부에서 출발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은 소련 대중문화만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다문화-포스트소비에트 시기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러시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형성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전환과 글로벌화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자본주의적 논리는 러시아 대중문화의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문화는 상업적인 상품으로, 대중은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여겨지는 자본주의는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념적 가치보다 상업적 가치를 중요시하였다. 스탈린 시기 이념적 단일성이나, 이후 시기 가치의 이중구조는 많은 기호와 욕구를 가진 대중 속에 다원화되었으며 이는 체제 전환 직후인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혼잡했던 사회분위기가 정돈되면서 푸틴 정권과 함께 러시아 문화는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 대중문화와 러시아의 일반적인 문화적 가치가 새로 도입된 자본주의 문화 현상과 함께 문화다원주의를 구성하고 이는 대중문화 구조 속에 수용, 통합되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다원화 과정은 대중문화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소련시기 이념적 선전, 선동을 대신하며 새롭게 등장한 1990년대 상업 광고는 그전 시대를 비난하듯 자본주의적 문화 이념과 이미지를 거침없이 대중에게 투사하였다. 서구의 광고가 러시아적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고, ‘이윤의 극대화’라는 시장적 검열 외에 어떠한 검열도 거치지 않은 선정적, 자극적인 소재와 형식이 광

고에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경험을 비롯한 러시아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는 거부되거나 희화화 되었다. 2000년대 들어 1990년대 광고의 지나친 상업성과 서구지향성이 조정되었다. 현재 러시아 광고는 이로부터 소련 시절 유명 포스터와 고대 루시의 현자부터 소련 인기 영화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고유의 문화형식과 이미지, 상징체계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러시아 고유의 형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은 ‘과거와의 화해’에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경향이 현재 러시아 대중문화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Lee, 2008a).

이러한 현상은 과거 사회주의적 가치의 이념과 소비중심의 자본주의 문화상품에 대한 대립을 넘어서는 가치의 공존으로 나타난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문화 패러다임은 과거 여러 가지 가치의 혼합으로 인한 대중문화의 다원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의 다원화가 혼돈이 아닌 새로운 가치로 변화될 수 있을지, 또한 그 속에서 대중문화가 확장된 능력과 높아진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III. 러시아 패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정치적 배경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대중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단일화된 대중문화에 이어 이중적 구도, 다원적 구도로 변화해 온 러시아의 문화 패러다임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 단일문화-소비에트 문화의 이상적 표현

1930년대 대중문화는 고급과 저급, 엘리트와 민중의 구분 없이 절충되는 단일 문화로 형성되면서 일상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장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에 유행했던 군복과 그것의 파생품들, 즉 물자부족과 초기 불세비키의 금욕주의적 가치의 결합에서 생겨난 혁명시기의 스타일은 새로운 소비문화를 체현하는 문명적 물건들, 시민적 유형의 다양한 복장에 자리를 내주었다(Лебина, 1994). 금욕적 이상은 남성들의 멋진 복장과 말끔한 세면, 여성들의 향수와 화장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공식적 선전에 밀려났다. 젊은 남성 노동자들은 보스턴 정장, 노란색 구두 그리고 멋진 셔츠를 꿈꿨고, 젊은 여성들은 월급을 크레프 드 신(crépe de Chine)드레스, 베이지색 신발, 옥스퍼드 정장 그리고 멋진 겨울 코트를 사는데 썼다. 새해 전날 밤의 파티에 대한 다음의 신문 기사는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문화적

Table 1. 러시아 대중문화의 세 가지 유형.

구분	시기	특성
단일문화 패러다임	1930년대-1950년대 중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소련 대중문화로 이전 시기 하부구조를 자신 속에 포괄하는 단일한 구도
이중문화 패러다임	1950년대 중반-1980년대	공식적으로 선언된 단일한 대중문화 속에 가치의 이중구조로 이념과 가치가 다른 비공식 하부구조 생성
다문화 패러다임	1990년대 이후	많은 기호와 욕구를 가진 대중 속에 여러 가지 가치의 혼합으로 인한 대중문화의 다원화, 문화다원주의

가치의 향유를 훌륭하게 요약해준다. 기사에는 28세 용접공은 20세의 여인과 함께 느린 탱고로 바닥을 미끄러지듯 가로질렀고, 다부진 몸매를 맘껏 강조한 검은색 모직 개버딘 양복을 입었으며, 그녀는 크레프 드 신 차림에 흰색장식이 있는 검은 신을 신었다고 표현했다(Richard, 2008), (Figure 2). 유행에 맞추어 외관을 꾸미는 이러한 경향은 1936년에 모스크바에 최초의 소비에트 패션, 집, 화장품에 관한 위생학 연구소가 설립되며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졌고, 언론매체들은 향수와 얼굴 마사지 등을 소비에트 문화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의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강조하면서 공식적으로 선전했다.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여성의 아름다워지려는 욕구는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30년대에 나타난 패션과 미에 대한 관심의 부활은 산업화의 진전과 노동자 문화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린 애트우드(Lynne Attwood)는 이를 1930년에 들어서서 국가가 여성에게 노동자이며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이중적 업무를 부과하면서 여성의 여성성을 보존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Figure 3>의 ‘곡식-조국에 대한 충성’과

같은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들은 단순히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가진 존재여야 한다고 국가로부터 요구되었다. 소련 여성은 건강한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의복, 비품 등에서도 좋은 취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졌다는 것이다(Ilic, 2001). 여성들은 고된 노동과 여성성을 결합하도록 요구되며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의미와 노동자의 의미가 결합되어 사회적 것과 일상적인 것이 단일화된 형태로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대중적으로 생산된 일상복들은 실용성을 강조한 구식 형에다 품질이 나빴다. 기성복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었고 스타일도 단순했다. 그러나 소련 여성들의 옷에 대한 소비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성들은 보다 세련된 옷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가 바인쉬테인(Olga Weinstein)은 이를 ‘자기-패션 전략(strategies of self-fashioning)’이라고 명명하였다(Kang, 2008). 이러한 현상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취향을 원하는 대중의 심리를 반영했고 대중문화가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이상적 추구, 계급적 구분의 철폐와 관계되었다.



Figure 2. 소비에트 1930년대 패션.
From Jung. (2016).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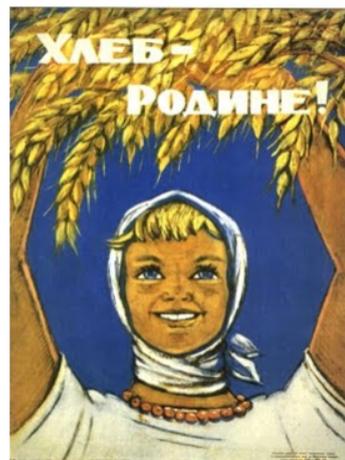


Figure 3. 『Soviet Fashion in Its Infancy』, 1930.
From Jung. (2016). p. 69.

소련 여성들은 재봉사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옷을 맞춰 입었는데 당시 소련 재봉사들은 서구 패션의 비밀 에이전트처럼 활동하였고, 국가패션살롱(state dressmaking salons)과 성공적으로 경쟁하였다. 바인쉬테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련 여성들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옷이라고 묘사한 옷들은 대부분 자신의 드레스메이커(private dressmakers)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Вайнштейн, 2007). 또한 의복 수선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여 의복을 고쳐 입었다. ‘개인적으로 옷 만들기(private dressmaking)’는 젠더화 된 하위문화(gendered subculture) 성격을 띠었다. 재봉사들의 가정 살롱(home salons)은 국가의 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가격이 저렴했으며 여성적 느낌(feminine overtones)을 잘 표현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패션을 위한 특권적 공간이 되었다. 이에 재봉사들의 가정 살롱은 비공식적 여성 클럽처럼 작용하였다(Kang, 2008). 이와 달리 한편에서는 서구 패션 트렌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였고, 암시장 거래상을 통해 서구의 의복을 구매하였다.

이처럼 소련 여성들은 스스로 만들거나 맞춰 입을 세련된 옷이나 암시장에서 구입한 서구의 옷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통한 자신의 표현은 소비상품의 양적인 제한, 품귀현상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국가에서 주도했던 단일화된 문화적 유형의 특성으로 상업적인 것을 지양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성을 이유로 개인적 욕구는 제한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드러났듯이 이 시기의 대중들은 제한된 현실 속에서도 대중문화가 내포하는 상업적인 의미와 자기표현 욕구를 표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일화된 대중문화의 이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화의 진전과 여성들의 소비욕구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 구조의 대중문화에서 패션은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였다.

2. 이중문화-공식패션과 비공식패션의 공존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산업경제가 소련의 소비사회 이전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고 스탈린 시대보다 통제와 억압이 완화되어 대중들의 자발적인 비공식 구조가 형성되었다.

스탈린 시기의 패션은 소비에트 여성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포스트 스탈린 시기 소련에서 특정 패션 스타일과 삶의 양식을 고집하는 청년 하위문화 집단들이 생겨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청년문화, 청년집단은 남성의 것을 의미하였고, 여성은 오랫동안 이들 집단에서 배제되었다. 예컨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소련에서 나타났던 청년 하위문화 집단 스틸라기(Stilyagi)는 압도적으로 남성 청년들로만 구성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의 대중문화 유형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이중적 구조속의 하부구조인 비주류에 속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이 패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청년 하위문화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와서야 가능해졌다. 1960년대의 스틸라기 집단을 리바이벌한 1980년대의 복고풍 스틸라기 집단에는 여성청년들이 포함되었고 이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스틸라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공식 청년 하위문화 집단, 즉 투소프까(Tusovka: 러시아 백만장자를 뜻하는 ‘노브이 루스키-Novyi Russkiy: 새로운 사람들’의 다른 이름)가 대도시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또한 여전히 대다수의 청년 하위문화 집단에서 여성은 소수이거나 배제된다는 점에서 패션 스타일이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Kang, 2008).

이 시기의 패션스타일은 헤어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당시 유행하는 패션과 해빙기 이후 스타일을 말해주고 있다. 1950년대에 소련은 류드밀라 구르

첸코(Lyudmila Gurchenco)를 새로운 이상으로 삼았다. 1956년 구르첸코가 영화 『Carnival in Moscow』 <Figure 4>으로 유명해진 덕분에 <Figure 5>과 같이 소련에 미국 핀업걸(pin-up girl) 스타일과 비슷한 ‘뉴 룩(new look)’<Figure 6>이 등장했다. 이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과 함께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등장했다. 동시에 스틸라기의 등장으로 이들은 부패한 서구문화의 희생양이자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모든 도시에 두발단속이 실시됐으며 단정치 못한 헤어스타일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삭발을 당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경제의 이중구조와 가치의 이중구조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가치와 비공식적 가치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모든 것에 있어 중용과 미니멀리즘을 강조했다. 이 시기는 에디타 피예히(Edita Piakeha)의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 1970년대에는 소련 최초로 히피족이 등장했다. 그들은 외모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자르지 않은 긴 헤어스타일에서 창조적인 무질서를 선호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식적인 가치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세련된 스타일과 대중이 지향한 패션스타일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중의 체제에 대한 불만

을 히피족과 같이 저항을 바탕으로 한 하위문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1980년대의 헤어스타일은 건초 더미를 떠오르게 했다. 부분염색, 올림머리, 펴은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선호했다. 6개월마다 새롭게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 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았으며 이에 따라 패션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중문화 시기의 패션은 공식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가치의 중요성과 대중의 자유를 중시한 비공식 구조의 문화를 통해 패션에서 점차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포스트소비에트적인 사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패션을 통한 정체성 표현

1990년대 이후 러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대중문화 역시 사회주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대중문화가 다원적인 구조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 시기였다.

소비에트시기의 여성은 패션에 대한 표현이 통



Figure 4. 『Carnival in moscow』, 1956.
From Jung. (2016). p. 72.



Figure 5. 『a good sign』, 1951.
From Jung. (2016). p. 72.



Figure 6. 1950년대 소비에트 패션.
From Jung. (2016). p. 72.

제되고 자신의 주체성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가 되면서 여성에게 패션은 가장 중대한 자아 표현의 한 부분이 되었다. 소비에트시기에 형성된 현대적이고 품위 있는 패션에 대한 욕구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패션 소비 욕구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가치가 중요시되는 대중문화의 흐름에 맞게 대중의 인식이 변화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경제가 붐을 이루게 되자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새로운 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 사업가들은 쇼핑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표출하기 위해 고가품을 매입하였다. 또한 유통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 저가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가능하게 되자 러시아 여성들은 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브랜드 제품 구입을 선호하게 되었다(Kang, 2008). 현대 러시아인들은 최고급으로 옷을 입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복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러시아적 흐름은 패션, 장식품, 화장품 구매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결과로 러시아

여성들은 유행에 맞춰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Jung, 2014).

이러한 러시아 대중들의 취향은 러시아 디자이너들에게 반영되어 1990년대 팝과 록 뮤직, TV와 잡지, 클럽 문화, 뮤직비디오와 광고뿐만 아니라 소련 붕괴와 함께 생겨난 나츠볼(Nazbol: 민족 볼셰비즘의 줄임말로 급진적 정치 운동을 일삼던 무리)의 이미지가 패션으로 나타났다. 또한 티그란 아벤티스얀(Tigran Avetisyan)과 ZDDZ의 다샤 셀라노바(Dasha Selyanova)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 브이파일(VFiles) 쇼를 통해 동시대 러시아 패션을 알렸다(Figure 7). 이와 같이 갑작스런 변화 속의 러시아는 새로운 자본주의 문화현상과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다문화적 문화의 흐름을 나타냈고, 이런 혼동 속에 자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이 새로운 패션을 통해 러시아 패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러시아 디자이너들은 냉전 이후 시대를 자신들만의 다원화된 문화 형식으로 완성해가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 성장 속도만큼이나 통제받았던 패션에 대한 욕구를 강한 소비로 분출하며 글로벌



Figure 7. 브이파일 2015 S/S.
From Son. (2015).
www.vogue.co.kr



Figure 8. 발렌틴 유다스킨, 2015 F/W.
From Valentin Yudashkin Fall Winter 2015. (2015).
<http://fashionshow-w.blogspot.kr>



Figure 9. 슬라바 자이체프, 2015 S/S.
From Slava Zaitsev Spring Summer 2015. (2015).
<http://fashionshow-w.blogspot.kr>

패션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 패션계는 서구 유럽의 패션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데서 발전하여 러시아만의 미적 정서와 개성으로 서구 유럽의 패션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전 시기 대중문화의 유형들을 발판으로 러시아의 보편적인 문화가치가 새로운 자본주의 문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기호와 욕구를 가진 대중 속에 다원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고유문화를 다시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러시아 패션 디자이너들은 러시아의 풍경, 전통적인 소재, 장식 등을 가미한 패션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발렌틴 유다스킨(Valentin Yudashkin)과 슬라바 자이체프(Slava Zaitsev)는 러시아의 민속복식과 문양을 반영하여 현대 패션에 적용하고 있다(Figure 8), (Figure 9).

풍부한 자본과 패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러시아 디자이너라는 이국적인 타이틀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 디자이너는 러시아의 미래 패션에 대한 긍정적 신호이자, 러시아를 단순히 매출 창구로 여기는 일부 패션 브랜드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러시아 디자이너 3인인 러시아 고유의 특성과 함께 혁신적인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결합하여 해외 부티크와 맞서 자신들의 매장을 오픈하여 러시아의 패션에 발전

을 더하고 있다.

이고르 샤푸린(Igor Chapurin)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러시아 최대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황제가 되었다. 1998년 브랜드가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소비자들은 국내 디자인 제품을 전혀 사려고 하지 않았기에 국내 디자이너가 부티크를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모스크바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이 변하여 러시아 사람들이 자국 브랜드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자국 디자이너들의 진면목을 알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이후 새로운 러시아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본토 브랜드 중 샤푸린이 스스로 디자인한 그의 공간은 모두 날카롭게 각진 모습이며 색칠한 유리창과 어두운 빛의 나무, 브랜드의 옷과 보석, 인테리어 디자인 소품과 가구들로 가득 차 있다. 현대적인 느낌의 바는 그의 부유한 고객들과 샤푸린의 수트나 각테일 드레스의 충성스런 팬들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다(SDN, 2008), (Figure 10).

2005년 데뷔 이후 파리 패션 위크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알레나 아크마둘리나(Alena Akhmadullina)의 부티크는 모스크바 니콜스카야 거리(Nikolskaya street)의 유서 깊은 빌딩에 위치한다. 아크마둘리나의 콘셉트 매장은 러시아의 포클로어와 이태리 대리석,



Figure 10. 이고르 샤푸린 매장 & 2009 S/S.

From SDN. (2008).

www.samsungdesign.net

벨기에 타일, 파리의 아르누보 포인트를 결합한 모습이다. 유럽 스타일의 테일러링과 실루엣, 그녀의 2009년 S/S 컬렉션에서 본 듯한, 러시아의 머리 두건 자수 장식에서 영감을 받은 프린트 등 전통적인 러시아의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진 이 매력적인 곳은 디자이너 자신의 예술세계를 잘 보여준다(Figure 11).

데니스 시마체프(Denis Simachev)는 그의 콘셉트 매장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패션을 찾아 볼 수 있다. 창고와 파리의 카바레를 결합한 듯 한 시마체프의 부티크는 나이트클럽까지 갖고 있는데, 이는 셀러브리티들과 패션 관계자들의 명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화려한 공간은 어지러운 프린트가 가득하고 반짝이는 소재와 눈부신 색채로 구성되

어 시마체프 디자인의 화려한 모습을 연상시킨다(Figure 12). 이들의 패션은 억눌렸던 과거의 사회적 체제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가치를 나타내는 현대적인 아이템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표현하고, 전통적인 러시아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서구적인 가치와의 결합을 통해 문화다원주의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의 공존을 패션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 브랜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디자이너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장벽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샤푸린은 점차 러시아 디자이너의 감각이 점차 패션에 반영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세계 패션산업과 비교할



Figure 11. 알레나 아크마둘리나 매장 & 2009 S/S.
From SDN. (2008).
www.samsungdesign.net



Figure 12. 데니스 시마체프 매장 & 2009 S/S.
From SDN. (2008).
www.samsungdesign.net

때 러시아는 발달 단계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으며 러시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여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등장할 것이고 현재의 디자이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에 러시아 패션 디자이너들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슈스키(Aleksandr Shumsky)는 파리 패션위크에서 컬렉션을 여는 샤푸린, 아크마들리나와 시마체프 쇼를 볼 때 앞으로의 러시아의 패션 입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SDN, 2008).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패션은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단일화된 대중문화의 이념적 단일성과 이종문화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이중구조에서 벗어나 전통성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문화 다원주의의 표현 수단이 되어 러시아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과 체제변화를 겪어온 만큼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무한한 잠재력으로 패션을 통한 페레스트로이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IV. 결론

러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해 이루어진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대립을 반영하는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보편적인 문화 현상으로서의 대중문화에서 러시아만의 독특한 사회적인 특성이 반영된 러시아 대중문화는 다양한 유형의 대중문화 발전을 이루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러시아 대중문화를 시기와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 변화에 따른 패션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대중문화의 유형변화를 분석하고 같은 시기 러시아 패션에 나타나는 러시아 대중문화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패션이 대중문화의 흐름과 유형변화에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기존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혼합과 함께 국가적인 주도의 단일문화 시스템을 형성했던 스탈린 시기 대중문화는 이후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문화 패러다임의 상당부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일문화는 해빙기 이후 등장한 이원적 구조로 인해 현실성이 거부되고, 이후 서구의 고급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가 합쳐지는 것을 대신한 공식과 비공식 문화의 이중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서구의 것과 달리 정치적인 위계질서에 따른 구조로 구성되었다. 또한 스탈린시대의 단일문화의 흔적으로 비공식 대중문화 속에서 서구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뒤섞인 형태로 존

Table 2. 대중문화의 흐름이 패션에 미친 영향.

구분	시기	대중문화가 패션에 미친 영향
단일문화 패러다임	1930년대-1950년대 중반	- 패션과 미에 대한 대중의 욕구-소비에트 문화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의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강조하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전 - 대중문화가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이상적 추구, 계급적 구분의 철폐와 관계-제한된 현실속의 욕구를 패션으로 표출
이중문화 패러다임	1950년대 중반-1980년대	- 정부의 공식적인 가치의 세련된 스타일과 대중이 지향한 하위문화의 이중적 패션 존재 - 공식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규제에도 개인적인 가치, 대중의 자유를 중시한 비공식 구조의 문화로 패션에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
다문화 패러다임	1990년대 이후	- 자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이 새로운 패션을 통해 러시아 패션의 정체성을 표현, 자신들만의 다원화된 문화 형식 완성 - 패션으로 전통성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문화 다원주의의 표현

재했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로 넘어오면서 사회주의 시기 대중문화의 경험과 새로 수입된 자본주의적 대중문화가 문화적 다원주의 구도 속에 흡수되면서 통합되는 향상을 나타내었고 그들 문화의 특수성과 연속성은 새로운 시대적 기반 속에서 또 다른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패션도 대중문화의 흐름과 같이 변화, 발전을 이루었다. 러시아 대중문화의 유형이 국가 주도의 단일문화 시스템이 형성되었던 스탈린 시기의 패션은 국가에서 주도했던 단일화된 문화적 유형의 특수성으로 상업적인 것을 지양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성을 이유로 개인적 욕구는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중들은 제한된 현실 속에서도 대중문화가 내포하는 상업적인 의미와 자기표현 욕구를 패션을 통해 표출하고자 하였다.

공식적 대중문화와 비공식적 대중문화 경쟁의 이원적 구도가 생겨난 해빙기 이후 시기의 패션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취향을 원하는 대중의 심리를 반영했다. 이는 러시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대중문화가 내포하는 이상적 추구, 계급적 구분의 철폐와 관계되었고 공식적인 가치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세련된 스타일과 대중이 지향한 패션스타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중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저항을 바탕으로 한 하위문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소비에트 시기의 여성이 패션에 대한 표현이 통제되고 자신의 주체성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면 사회주의 대중문화와 새로 수입된 자본주의적 대중문화가 통합되는 문화적 다원주의 구도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가 되면서 여성에게 패션은 가장 중대한 자아 표현의 한 부분이 되었다. 소비에트시기에 형성된 현대적이고 품위 있는 패션에 대한 욕구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패션 소비 욕구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주의

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가치가 중요시되는 대중문화의 흐름에 맞게 대중의 인식이 변화되어 온 것이다. 이들의 패션은 과거의 사회적 체제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나타내는 현대적인 패션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표현하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활용하여 서구적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문화다원주의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의 공존을 패션을 통해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러시아는 지난 세월동안 수동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던 서구 패션에서 발전하여 자신만이 가진 개성과 스타일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패션 시장의 잠재력과 다채로운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풍부한 자본과 패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러시아 디자이너만의 특이성으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패션 시장에서 러시아의 현대 패션에 대한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대중문화 뿐 만 아니라 러시아의 사회, 정치, 예술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패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러시아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

- Cho, Y. S. (2006). 포스트소비에트 공연문화의 변화상: 연극을 중심으로 [Research of changes post-soviet theatrical culture]. *Slav Newspaper*, 21(3), 239-270.
- Cho, B. O. (2013). *러시아 소비에트 문화와 문화정책* [Russian Soviet culture and cultural policy]. Seoul: Shinasa.
- Hofmann, D. L. (2003). *Stalinist Values: The Cultural Norms of Soviet Modernity, 1917-1941*. London: Cornell Univ. Press.
- Ilic, M (2001). *WOMEN IN THE STALIN ERA*.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 Joh, Y. K., & Geum, K. S. (1998). A study on soviet

- constructive fashion in 192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6(-), 183-203.
- Jung, H. (2014).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moo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3), 51-67.
- Jung, J. E., & Kim, H. K. (2015). A study on fashion design with application of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 Focused on Franz Kline's pain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4), 1-15. doi:10.18652/2015.15.4.1
- Jung, J. E. (2016). *The study of fashion design followed by changing of russian art trend in late twenty century: Focused on sots 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ans University, Seoul.
- Kang, Y. H. (2008). Russian women's identities and fashion consumption in the post-soviet era.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2(3), 3-30. doi:10.18327/jias.2008.10.12.3.3
- Kim, K. A., Park, S. K., & Uh, M. K. (2013). A study on functional fashion design of the early 20th century based on Russian constructiv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3(1), 87-105.
- Kim, Y. I. (1992). *Study on the soviet constitutional perestroika and the new Russian federation constitu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 Kim, Y. M. (2008). *Sociality reflected in Russian avant-grade art: Focusing on Russian constructiv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D. K. (2013).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d dior fashion design in soviet Russ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G. J. (2011). A study on the Russian rock. *Korean Journal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23(4), 347-366.
- Lee, H. J. (1991). *Study on khrushchev's peace struc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 Lee, J. J. (2006). *고르바초프의 정치 및 경제 개혁과 소련붕괴*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gorbachev].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ee, J. Y. (2010). *포스트소비에트 문화정체성과 새로운 모스크바 공간의 탄생* [The post-soviet cultural identity and the birth of a new space in moscow]. *Russia Studies*, 19(1), 225-246.
- Lee, M. Y. (2008a). The Russian mass culture in the changes of cultural paradigms-reformation of the concept and the structure. *중소연구*, 32(1), 161-190.
- Lee, M. Y. (2008b). *The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mass culture*. Seoul: Hanul academy.
- Lee, M. Y. (2009). *러시아역사다이제스트100* [History of Russia-Digest 100 series]. Seoul: Grambooks.
- Lee, M. Y. (2010).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대중문화: 연속성과 보편성* [Post soviet russia pop culture-continuity and catholicity]. *e-Eurasia*, 21(-), 1-2.
- Oh, W. K. (2009). 'Culturedness' as a paradigm of soviet culture in the 1930s. *Korean Journal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21(1), 305-333.
- Richard, S. (2008). *Russian Popular Culture: Entertainment and Society Since 1900* (Kim, N. S., Trans.). Seoul: Hanul academy.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SDN. (2008, December 2). Russian Fashion Market. *samsungdesign.net*. Retrieved March 21, 2016, <http://www.samsungdesign.net.library.dongduk.ac.kr:8010/Report/IndustryTrend/Marketing/content.asp?an=11199&glChk=&block=&page=&cnt=&keyword=%B7%AF%BD%C3%BE%C6+%B5%F0%C0%DA%C0%CC%B3%CA>
- Service, R. (2007). *스탈린, 강철 권력* [Stalin, Strong authority] (Yoon, G. S., Trans.). Seoul: Gyooyangin.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Shin, G. H. (2004). *Art and society in revolutionary Russian a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lava Zaitsev Spring Summer 2015. (n.d.). *fashionshow-w.blogspot*. Retrieved April 21, 2016, from [http://fashionshow-w.blogspot.kr/2014/10/slava-zaitsev-spring-summer-2015-2015-2.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blogspot/yUbAn+\(Fashion+Show\)](http://fashionshow-w.blogspot.kr/2014/10/slava-zaitsev-spring-summer-2015-2015-2.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blogspot/yUbAn+(Fashion+Show))
- Son, G. H. (2015, May 11).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 [Inspired by fashion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VOUGE KOREA*. Retrieved May 11, 2015, from <http://www.vogue.co.kr/2015/05/11/%eb%9f%ac%ec%8b%9c%ec%95%84%ec%99%80-%eb%8f%99%ec%9c%a0%eb%9f%bd%ec%97%90%ec%84%9c-%ec%98%81%ea%b0%90%ec%9d%84-%ec%96%bb%ec%9d%80-%ed%8c%a8%ec%85%98>
- Valentine Yudaskin Fall Winter 2015. (n.d.). *fashionshow-w.blogspot*. Retrieved April 21, 2016, from [http://fashionshow-w.blogspot.kr/2014/10/slava-zaitsev-spring-summer-2015-2015-2.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blogspot/yUbAn+\(Fashion+Show\)](http://fashionshow-w.blogspot.kr/2014/10/slava-zaitsev-spring-summer-2015-2015-2.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blogspot/yUbAn+(Fashion+Show))
- Вайнштейн, О. (2007). *Мое любимое платье: портниха как культурный герой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What is your favorite dress: Dressmaker as a cultural hero in soviet russia]. *Теория моды. Одежда. Культура. Тело*, (3), 101-126.
- Лебина, Н. (1994). *Оксфорд сиреневый и желтые ботинки* [Oxford lilac and yellow the shoe]. *Родина*, (9), 112-117.

Russian Popular Culture and Fashion

Jung, Ju Eun · Chung, Hyun Sook · Kim, Hye Kyung⁺

Ph.D.,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In Russia, as the social economic changes were experienced due to the system transformation, the popular culture reflecting the various phenomena and conflicts was formed. Accordingly, by analyzing the types of Russian pop culture depending on the social chan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pop culture appeared in Russian fashion at the same period of time, this study aims to specifically reveal that Russian fashion may affect the flow and type changes of pop culture. A single culture, later, was formed as the dual structure of formal and informal cultures in the same format as the western high-level elite culture and popular culture were merged. The popular culture, formed based on Russian historical distinctiveness, was associated with the abolition of ideal pursuit and class distinction which it contained; appeared differently as the government-required refined style as an official value and the public-oriented fashion style; and expressed the complaints of the public about system through the sub-culture based on resistance. Entering the post-Soviet period of the cultural pluralism structure, the fashion for women became the most significant part for self-expression, which appeared as the fashion consumption desires. We could recognize that their fashion represented Russia being changed through the modern fashion expressing the new values by getting out of the past social system, and was expressing, through fashion, the coexistence of the values which the cultural pluralism would try to express through the combination with western elemen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Russian traditional values.

Key words : Russian popular culture, Russian fashion, Post-Soviet fashion, Russian fashion designer